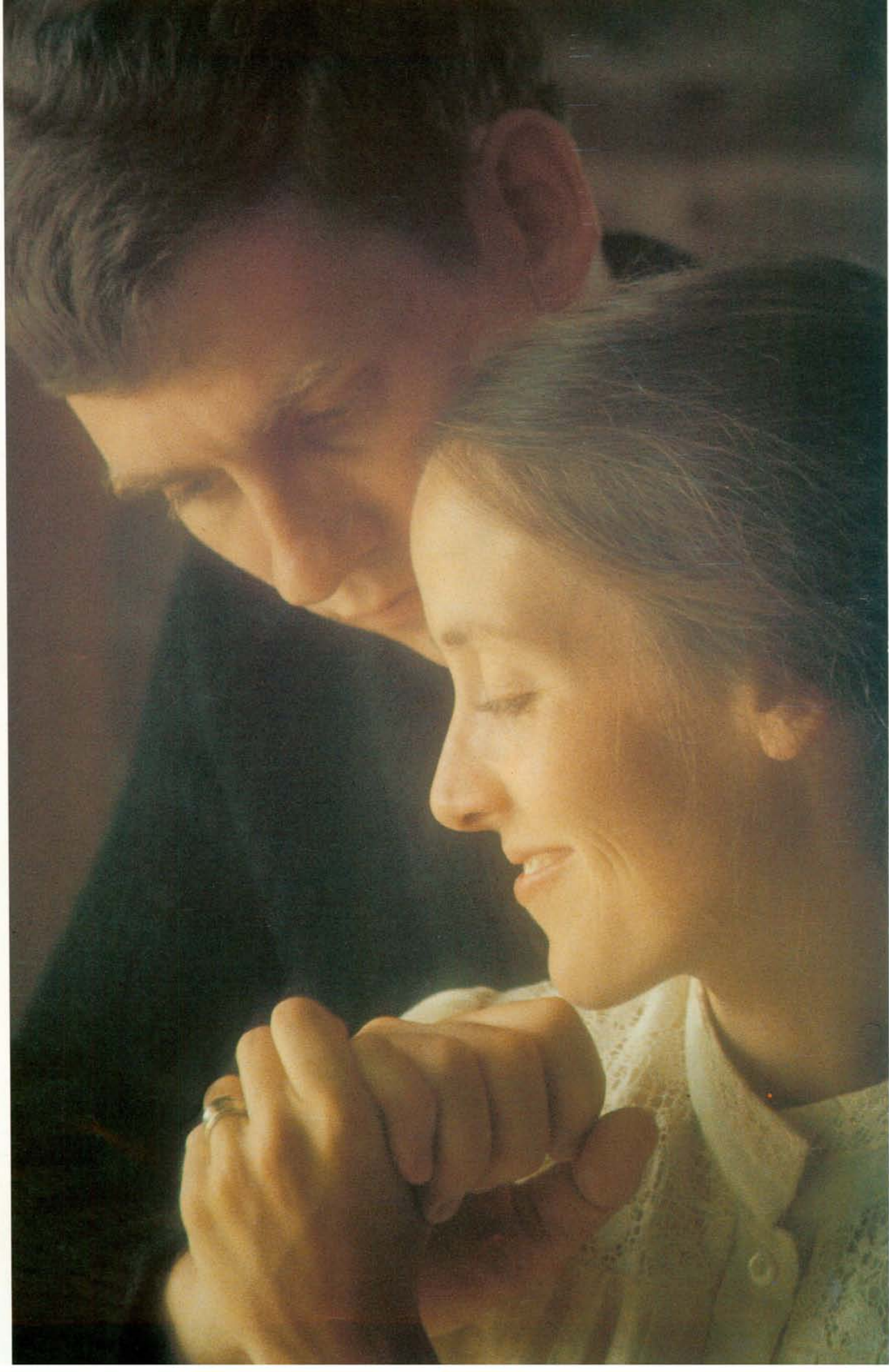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부록 : 친구들 · 1999년 10월호



리얼라이즈



표지

앞: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뒤: 사진 촬영: 마이클 맥레이, "순결과 정절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26쪽과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30쪽

친구들 표지

마샤 쟈스코바는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인 애담 블로켓 장로(왼쪽)와 새뮤얼 드라운 장로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마샤 쟈스코바, 러시아 푸쉬킨", 8쪽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원한 집을 지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우리 가족을 변화 시킨 복음 일피에로 모랄로스
- 18 가장 소중한 선물 존 비 덕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영의 증거
- 26 순결과 정절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 30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테런스 디울슨
- 44 말일성도의 소리: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

청소년란

- 10 더 높이 날아 오름 리처드 엠 롬니
- 40 신앙의 시련 테일러 허틀리
- 43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세인 알 버커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찰스 디디에이 장로
- 4 이야기: "선생님이 옳았어요." 카르멘 드 헤르난데스
- 6 함께 나누는 시간: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8 친구 사귀기: 마샤 쟈스코바, 러시아 푸쉬킨 마빈 케이 가드너
- 12 신약 성서 이야기 뽑기 가방 콜리스 클레이튼
- 14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 주님과 가까이 생활함 마태오 듀카
 - 부모님을 공경함 헤르만 안드레스 토버르 콘트리라스
 - 아홉 살 난 회원 선교사 애슐리 콜리스터
- 16 노래: 저는 생일이 좋아요 윌리스 에프 베넷과 트레이시 와이 케넌



18쪽 참조



44쪽 참조



10쪽 참조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제10호

99990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 치 욱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윈스턴,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웬디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켄슨
고문: 케이 이 켄슨, 존 엠 맥데슨
교파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른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헬렌
선일 디자이너: 세리 록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이날도 케이 크리스티안슨, 테니즈 커비, 제이슨 엘 워포드, 디나 엘 쇼펜슨
디지털 표정 인쇄: 제프 미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안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권: 제403호, 제36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은환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심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운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기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리투아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October 1999 No.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잡지를 도서관에 둬

세이또도 미찌(일본어판), 1998년 10월호에 실린 "전세계를 위한 잡지"라는 기사를 읽고, 저는 지부에서 공립 도서관에 잡지를 기증하도록 제안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매 선교사들이 도서관에 제공하는 봉사과 장로들의 예의 바른 모범 때문에 잡지를 도서관에 놓아 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잡지를 읽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즈끼 사토
일본 구시로 지방부
네무도 지부

"그분의 희생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998년 부활절에 저는 리아오나(키리바시어판)를 받았습니다. 리아오나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으며, 그분의 희생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저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교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왕국에서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친절과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로아이네타 바보이아
키리바시 타라와 스테이크
비케니베우 와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됨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특히 대판장단 메시지는 저의 영을 고취시켜 줍니다. 대판장단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평상시에 저의 생활에서 느끼는 것과 같지 않은 믿을 수 없는 화평이 저에게 옵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성신의 영향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기사, 특히 질의 응답란의 기사를 읽고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질의 응답은 젊은 말일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울 솔리츠 차바리아
블리비아 오루로 스테이크
오루로 모테르노 와드

부부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많은 경험 가운데 일부를 리아호나 독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봉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선교 사업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축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 당면한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일에 관한 의견, 그리고 선교사 부름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게 나누고 싶은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지명받은 임무, 즉 전도, 인도주의적 봉사, 교회 봉사 등과 같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의 성명은 물론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 번호와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사와 가능하면 사진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uple Missionary Service,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영원한 집을 지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게 성지라고 부르는 마을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해 종종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분쟁하는 …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25)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132:8)고 경고하셨습니다.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거할 집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지을 수 있는 알맞고 훌륭한 설계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집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축 규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을 지으라.”

정과도 잘 맞습니다. 즉 “반석 위에”(마태복음 7:24) 세운 집, 역경이라는 비, 반대 세력이라는 홍수, 도처에 의구심이 퍼져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의 바람을 잘 견딜 집이 될 것입니다.

혹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성전 건축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잖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나요?”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 만일 우리가 이 건축 지침을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수석 설계사이자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고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설계도는 우선 우리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

“너는 기도할 때에 …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

“중언부언하지 말라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5~7, 9~13)

설계도의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가르

쳐야 합니다. 저희 만아들은 3세 때부터 저희 부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와드 감독으로 봉사중이었는데, 우리 와드에는 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마가렛 리스터라는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리스터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동화 책에 나오는 이야기와 기도 내용을 혼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스터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헨리 페니와 리켄 닭과 러키 칠면조와 그 밖의 모든 어린 동물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후일 마가렛 리스터 자매님이 완전히 회복되자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기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 아이들은 최근에 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집은 또한 금식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에 있는 이 내용은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가 한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금식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뿜 동산 같겠고 물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말씀하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몰려든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습니다. 이어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뭄은 끝났습니다.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6~11)

그처럼 우리의 집이 금식의 집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집은 신앙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그와 같은 변함없는 신앙의 실례는 니파이의 정신과 그의 감동적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래 전에 대관장단 보좌이신 휴비 브라운(1883~1975년) 부대관장님과 함께 사모아 선교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령 사모아의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우리 일행에게 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곧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예배당과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들과 하나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파고파고 공항을 떠나 마푸사가에 있는 학교로 갈 무렵에는 가뭄의 흔적이 사방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났고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모임이 시작되자 기뻐했습니다. 개회 기도를 한 형제는 우리 일행이 안전하게 도착한 데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말씀하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몰려든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습니다. 이어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뭄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서 사모아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형 비행기의 조종사가 지상 근무 요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이처럼 특별한 날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마푸사가에 있는 물론 학교 상공을 제외하곤 하늘에 구름 하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브라운 대관장님은 제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에게 기회가 왔군요. 가서 이해시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분명히 신앙의 집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을 학문의 집으로 만듭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그분은 또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게 얻으리니”(마태복음 11:29) 학문에 대한 여러 탐구 방법 중 이처럼 심오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학문의 집이 되게 합시다.

또 우리의 집은 영광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며,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늘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으로 잘 알려진 새뮤얼 클레멘스는 허클베리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6번 병상의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 친구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해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훈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허클베리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몸이 떨렸다. 난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예전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기도할 말이 생각나질 않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마치 그분과 숨바꼭질을 하듯 말이 나오질 않았다... 왜 그런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말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난 죄를 안 짓는 척했지만 내 심으로는 아주 큰 죄에 매달려 있었다. 입으로는 옳은 일과 깨끗한 것만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그분은 날 알고 계셨다. 너는 기도를 거짓말로 할 수는 없어... 난 그 사실을 깨달았다.”(허클베리핀의 모험 (1985년), 306~307쪽)

누군가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관성, 그대는 하나의 보석이니!”(인용문 선집, 버튼 스티븐슨 편(1934년), 304쪽) 우리는 늘 일관성 있게 선한 생활을 함으로써 영광의 집을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집은 질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권

고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1)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일을 위한 시간, 공부를 위한 시간, 봉사를 위한 시간, 오락 활동을 위한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둡시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은 질서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시다. 순결한 생각, 고귀한 목적, 기꺼이 하려는 마음과 준비된 손은 하나님의 집의 특성들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 저는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4백 명도 넘는 선교사와 아주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어린 한 선교사가 몹시 앓았습니다. 몇 주일 동안 입원을 한 끝에 담당 의사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수술을 할 준비를 하면서 그 선교사의 부모님을 불러 달라고 제게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수술에서 소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환자의 아버지와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에게 안수를 하며 축복을 주었습니다. 축복한 다음에 있었던 일은 제게 하나의 간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6인용 병실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병상에도 각종 병을 앓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이 있던 날 아침

선교사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 방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1번 병상 환자에게 식사 쟁반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계란 프라이 요리인데, 좀더 여유 있게 갖고 왔어요.”

1번 병상 환자는 잔디 깎는 기계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발 끝을 다친 것 말고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오늘 아침은 안 먹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 식사는 2번 병상 환자께 드리겠어요.”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다가서자 그는 “저도 오늘 아침은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 모두가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간호사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침마다 잘 잠수시더니 오늘은 한 분도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에 6번 병상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번 병상이 비었잖아요. 우리 친구가 지금 수술실에 누워 있던 말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교회 선교사인데, 이 병실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자기 교회 원리에 대해 말해 주었죠. 기도와 신앙과 금식의 원리를 전해 주면서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구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 친구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해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려 하자 담당 의사는 한사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다면 그걸 저를 속이는 행동일 겁니다. 이제껏 수술을 해오면서 제 손이 제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권능에 의해 인도된 듯한 느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못 받습니다. 높은 데 계신 분께서 수술이 잘되게 절 도우셨으니 절대 수술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건축 사업입니다. 우리는 영

원한 집,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한 건축자들입니다.(고린도전서 3:16 참조)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

이렇게 할진대 주님, 즉 우리의 건축 감리사께서는 그 옛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 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열왕기상 9:3)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설계를 따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을 집을 짓는 일, 특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셨다.

2. 그분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집을 지으라고 권고하셨다.

- 기도의 집
- 금식의 집
- 신앙의 집
- 학문의 집
- 영광의 집
- 질서의 집
- 하나님의 집

3.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열왕기상 9:3)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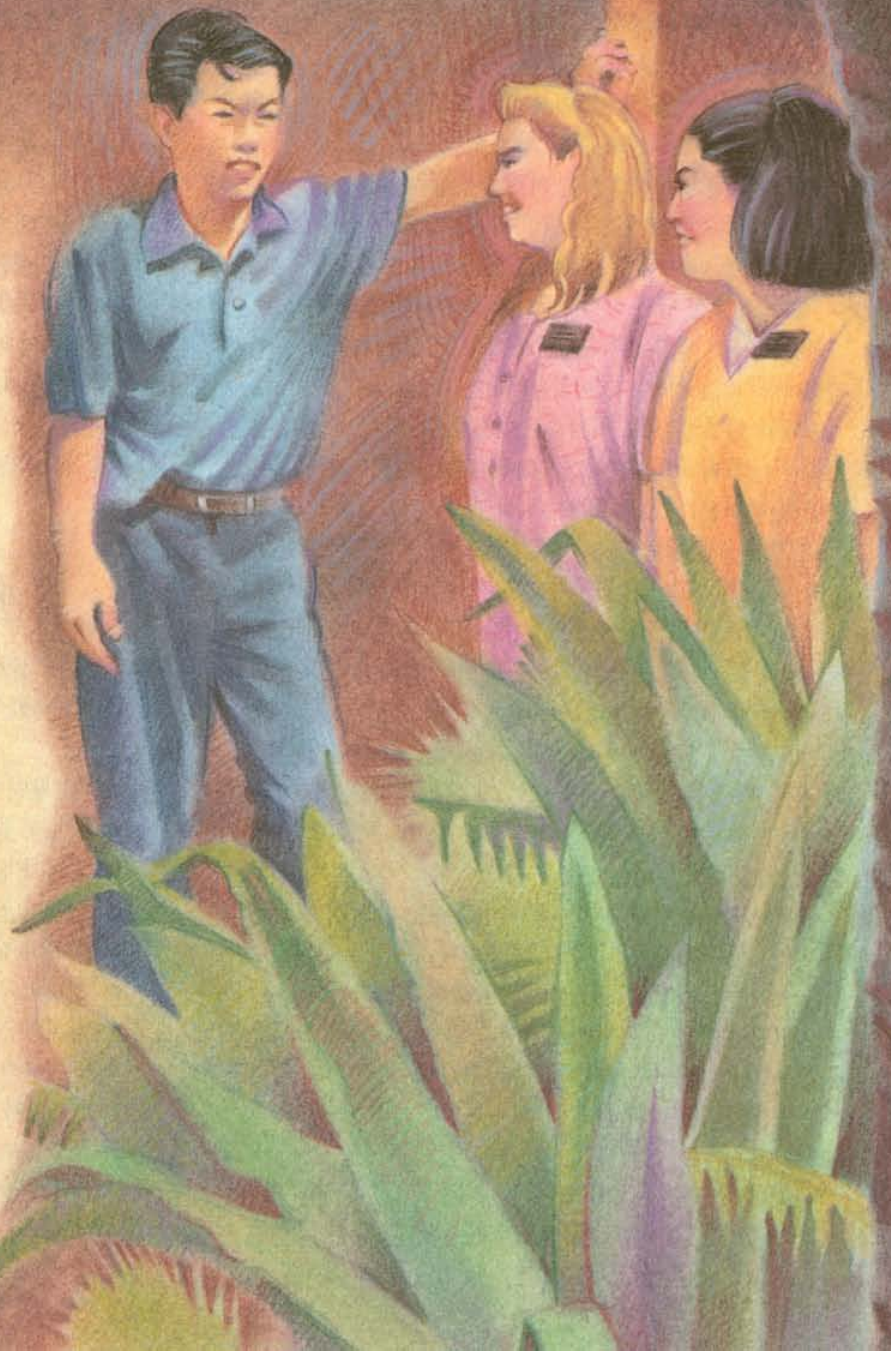
알피에로 모탈로스

그림: 딜린 마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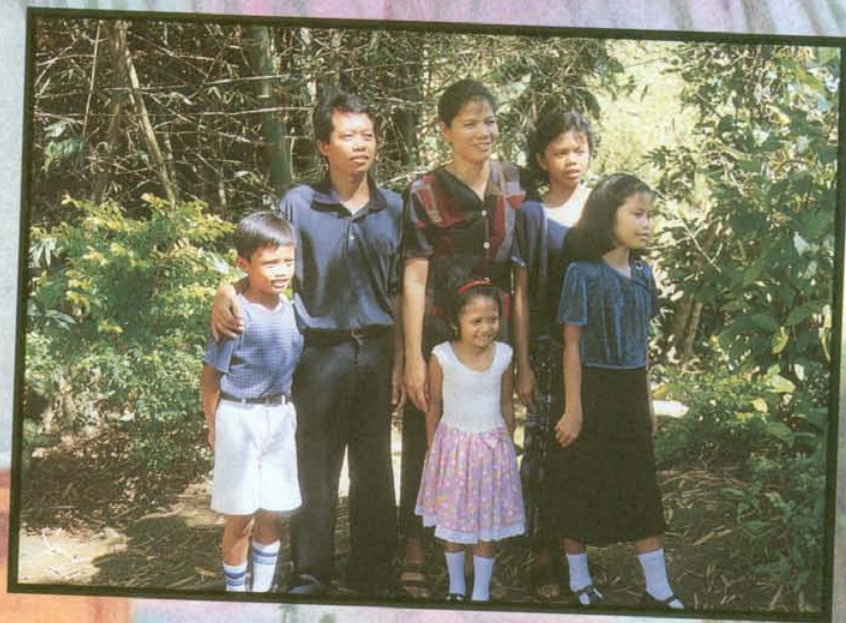
19 97년 2월 이전의 우리 가족은 하나의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강의 수면은 고요해 보였지만 그 밑에는 계속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혹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나는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었다.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다. 거기에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가족을 재정적으로 잘 부양하고 있는 이상, 아내가 내 행동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2월 어느 날 필리핀 레이트에 위치한 타크로반에 있는 우리 집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밖을 내다보니 가슴에 명찰을 단 낫선 두 아가씨가 서 있었다. 말일성도 선교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토론도 할 겸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앉으라고 권하면서 나는 당장이라도 논쟁할 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한 채 돌아갈 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피에로와 에스트렐라 모랄로스
 부부. 이들의 자녀인
 카리나(13세), 이소벨(11세),
 알레산드라(6세), 그리고
 실베스트레(9세).



라고 생각하게 되자 나는 일부러 거짓 행동을 했다. 논쟁을 숨써 좋게 이끌어 가기 위해 나는 주의를 기울이는 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말할 차례가 되면서 논쟁할 거리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난 그저 두 자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자매들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기를 원했고, 나도 그러자고 했다. 그들이 떠나자 내 마음속에 자리잡았던 평온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살아 났다.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난 약속을 지켰으며,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난 헛된 야망을 추구하느라 내팽개쳐 두었던 가치관과 진리를 다시 발견하곤 했다. 선교사들이 떠나가면 언제나 평온이 점점 오래 머물고 있음을 느꼈고, 곧 그들이 다시 찾아주기를 고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경전과 그들이 주고 간 독서 자료는 내 삶의 자그마한 부

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하는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했다. 과거의 나는 내 결혼 생활의 아내라는 반쪽만을 살살이 조사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 반쪽에게서 난 오로지 나쁜 점만 찾아내려고 애썼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내 삶을 새로이 조명하면서, 난 결혼 생활의 나머지 반쪽인 나 자신을 좀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으며 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나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수면만 고요한 것이 아니라 물 전체가 평온한 하나의 호수가

되게 해준 자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주께 감사드린다. □

함께 이야기합시다

다음 질문과 제언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이 기사를 가정의 밤, 교회의 공과 시간, 혹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간의 상호 관계를 지켜보시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여러분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어떤 복음 원리가 도움이 되었는가? 한 가지를 선택해 이번 주일에 그것을 적용해 본다.

- 가정의 밤 시간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읽고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복음이 우크라이나의 이 젊은 말일성도들의

생활 속에 들어온 이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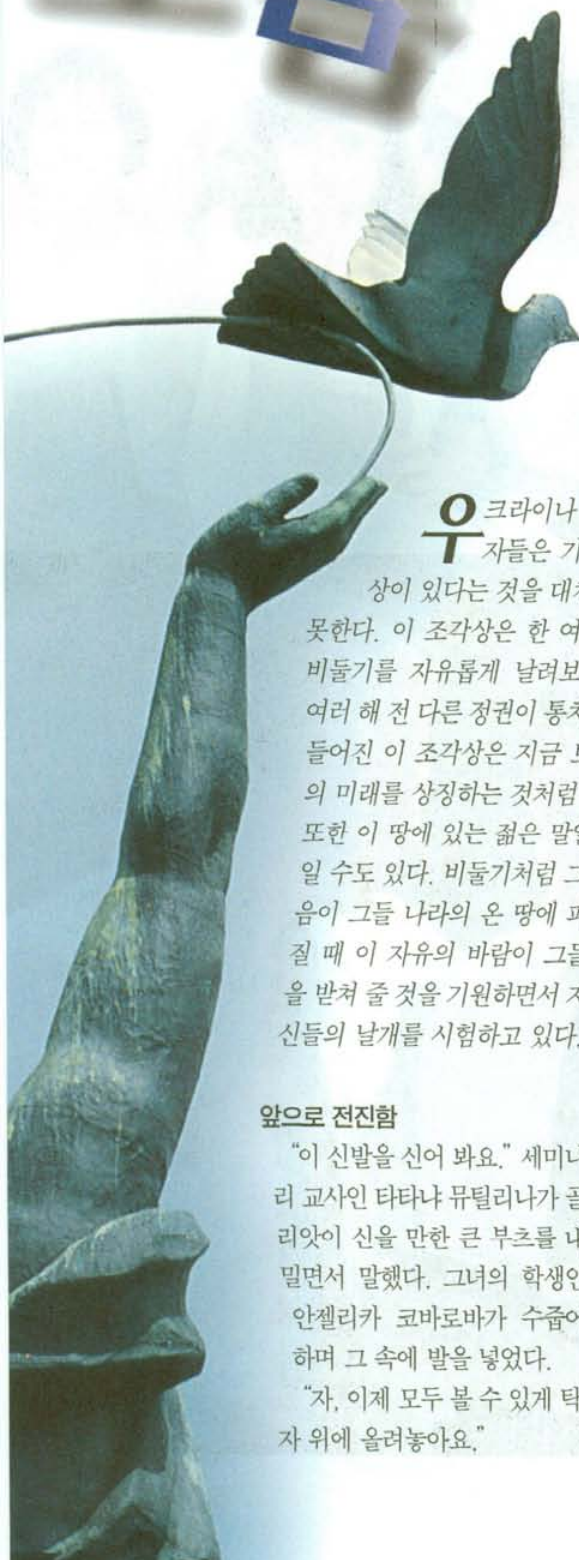
그들은 날개를 펼치며 더 높이 날아 오르고 있다 …

더 높게 날아

리차드 엠 톰니
사진 촬영: 글손이



오름



U크라이나 키예프의 통근자들은 기차역 뒤에 조각상이 있다는 것을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조각상은 한 여인이 세 마리의 비둘기를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모습이다. 여러 해 전 다른 정권이 통치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조각상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있는 젊은 말일성도들의 상징일 수도 있다. 비둘기처럼 그들도 회복된 복음이 그들 나라의 온 땅에 퍼질 때 이 자유의 바람이 그들을 받쳐 줄 것을 기원하면서 자신들의 날개를 시험하고 있다.

앞으로 전진함

“이 신발을 신어 봐요.” 세미나리 교사인 타타나 뮤틸리나가 폴리아티 신을 만든 큰 부츠를 내밀면서 말했다. 그녀의 학생인 안젤리카 코바로바가 수줍어하며 그 속에 발을 넣었다. “자, 이제 모두 볼 수 있게 탁자 위에 올려놓아요.”

그 말에 반원들이 모두 주의를 집중했다. 뮤틸리나 자매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여행에 나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뒤 경전을 읽고, 질문을 토론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간증하면서 카르콥스키 지부의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 교재의 감동적인 공과를 가르쳤다.

요점은 무엇인가? 안젤리카가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의 미래는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에 대해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스비아토쉬노 지부의 갈리나 트로예멘코가 말했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큰 차이가 생기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높은 표준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교회에 매력을 느꼈던 점이예요. 저에게는 교회 회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네 가족은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이제 저도 회원이 되었으니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한 갈리나 트로예멘코

“여러분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 예레스콥스키를 복음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범이었다. 15세의 교환 학생인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의 체르카씨(키예프 남부)를 떠나 일리노이 주의 슬리피 할로우(시카고의 북부)로 왔다. 나탈리아가 머물 집주인인 말일성도 가족들은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에게로 보내셨다고 생각해요.”라는 나탈리아의 말을 듣고 꽤나 충격을 받았다.

나탈리아는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심이 깊은 가족과 함



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나탈리아는 브루스 비와 진 빙함 부부 가족의 소개서를 읽고 그들이 담배도 피우지 않고 정규적으



왼쪽 위: 키예프 청소년 대회에서의 나탈리아 예레스콥스카(가운데 앞줄). 왼쪽 및 위쪽: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빅토르 루소. 그는 언젠가 자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다.

로 교회에 참석함을 알게 되었다. 나탈리아는 빙함 부부 가족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나탈리아는 그 다음 1년 동안 가족 기도, 가정의 밤, 청년 모임, 성찬식 및 주일학교에 참여하면서 지냈다.

나탈리아의 영에 대한 감수성은 날로 자라났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찾았던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선교사 토론을 하게 되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부모님이 결코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탈리아는 용기를 내어 요청했고 결국 허락을 받아 냈다. 나탈리아는 이듬해 1996년 1월 7일에 침례 받았

다. 그러나 곧 또 다른 걱정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유일한 말일성도가 될 35만 인구의 체르카씨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나탈리아는 말한다. "전 두려웠어요. 교회가 없어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성찬을 들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디에 있든지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라는 빙함 형제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은 제게 다소 위안을 주었어요."

두 번의 안식일을 혼자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낸 후의 어느 날, 나탈리아는 키예프에서 열리는 말일성도 청소년 대회에 관해 듣게 되었다. 나탈리아는 당연히 거기로 갔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윌프라이드 엠 보그 선교부장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체르카씨에서 교회가 인가 받기 위한 절차를 계획했다. 맨 먼저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초청장에는 성인들의 서명이 있어야 했다.

나탈리아는 한때 미국의 말일성도 가족과 지낸 적이 있는 한 대학 교수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그는 돕겠다고 자청하고 나서 공식적인 초청장을 준비하고 경영진의 몇 사람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게 하고, 근처 작은 마을의 시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했다. 나탈리아가 교회 표준들을 설명하자 학교의 상담 부장도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선교사들을 청해서 전교생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6년 9월에 첫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10월에 교회 집회가 열렸으며, 1월에 첫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다. 2월에는 다른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청년,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및 초등 협회가 조직되었다. 소풍 행사와 봉사 활동이 있었다.

남자들은 신권에 성임되었으며 지부장이 부름을 받았다. 나탈리아는 오랜 친구 한 명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그 교수의 부인까지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지부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나탈리아는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설립할 생각을 하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그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원해 주실 거야." 그와 같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것이다.

“저는 좋은 사람들 하고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나탈리아처럼 혼자 굳세게 견디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 요구되며,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를 떠나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하다. 그것은 빅토르 루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의 생활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을 때 깨닫게 된 것이다.

인생은 빅토르에게 있어 고된 것이었다. 소년 시절 너무 야위었던 그는 다른 소년들에게 얻어맞곤 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실수로 이어졌다. 그는 15세 때 폭력배에 가담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는 소위 ‘악당들’의 한 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과 깊이 연루되기 전에 교회를 알게 되었다. 말일성도인 그의 고모가 빅토르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일 집회에 초대했었던 것이다.

“개회 기도 때부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고 빅토르가 말한다. “그들은 낭송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밀려드는 큰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이해했습니다.” 빅토르는 크게 감명을 받고 계속 참석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모임을 요청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찬식 동안 느꼈던 강력한 느낌이 다시 저를 휩싸았지요.” 라고 그가 말한다.

빅토르는 신권에 대해 배울 때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저는 신권을 가진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사랑을 느꼈어요. 악당들과 있을 때에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선교사 토론 중에 ‘내가 폭력배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로부터 전 이전의 동료들과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저도 놀랐어요. 이전의 친구들 몇 명은 저를 조롱했지만 대부분은 단지 그렇다면 가도 좋아. 우린 그냥 놔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적들은 복수를 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실한 친구들은 그의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은 선교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침례에까지 이른 사람은 빅토르뿐이었다.

“저는 처음에 회개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 18세인 빅토르는 말일성도가 된 지 거의 3년이 된다. 그는 다른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도우며 가정 복음 교육도 나간다. 그는 복음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키예프에 성전이 완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매일 복음을 가르치는 장로들과 함께 있는 그를 볼 수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들이 제정신인지 두려웠어요”

빅토르처럼 키라 굴코도 교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 개개인을 사랑하신다고 배웠다. 그러나 키라에게는 침례를 받겠다는 결정이 쉽사리 내려지지 않았다. 키라는 처음에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를 기억한다. “전 부모님이 제정신인지 의심했어요.” 다행히 키라는 비평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자신도 부모님이 갖게 된 새 종교가 진실한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어 새로운 개념에 눈을 돌리는 것이 자유롭고 쉬워졌을 때 부모님은 다른 종교와 철학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저의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학교의 국제 우정 클럽의 회장이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펜팔을 찾고 있던 유타 주 리버톤의 한 교사로부터 온 펜팔을 구하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반 학생들이 회답을 했고 그 뒤 100통 남짓한 편지가 든 큰 상자를 받게 되었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 언급했는데 어머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몰랐어요.

“하루는 우리가 집 근처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위쪽: 회의론자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선교사로 바뀐 키라 굴코.
 왼쪽: 언젠가는 키예프 심포니 홀(왼편 멀리 보이는)에서 연주할지도 모를 재능꾼들인 니콜라스와 세르게이 체미조프. 그러나 이들은 그때까지 가정의 하모니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안내장을 보게 되었어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우선 그 곳에 가면 어머니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게 될 것 같고, 마침 다른 종교를 찾고 있던 터라 부모님은 가보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때가 1991년 10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우리 아파트에 오기 시작했지요. 곧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부모님은 영원한 가족에 대한 교리

를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는 훌륭한 가족을 가졌으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였죠. 부모님은 침례식에도 가보셨고 영을 느꼈지요. 마침내 12월에 그들은 침례 받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토론을 모두 들었지만 부모님이 왜 교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 혹시 미쳐 버린 건 아닌지 두렵기까지 했죠. 그러나 물문경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제 개종의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저는 저를 둘러싼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님과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992년 2월에 침례 받게 되었어요. 전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뒤로 키라는 친구 레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도왔으며,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님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키라는 어머니가 물문경을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

는 일을 돕는 것을 보았으며, 아버지가 지방부장으로 봉사하시는 것도 지켜보았다. 키라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해 오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있다.

“복음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니콜라스와 세르게이 체미조프, 그리고 그들의 부모 역시 교회의 발전을 돕고 있다. 그 가족은 1992년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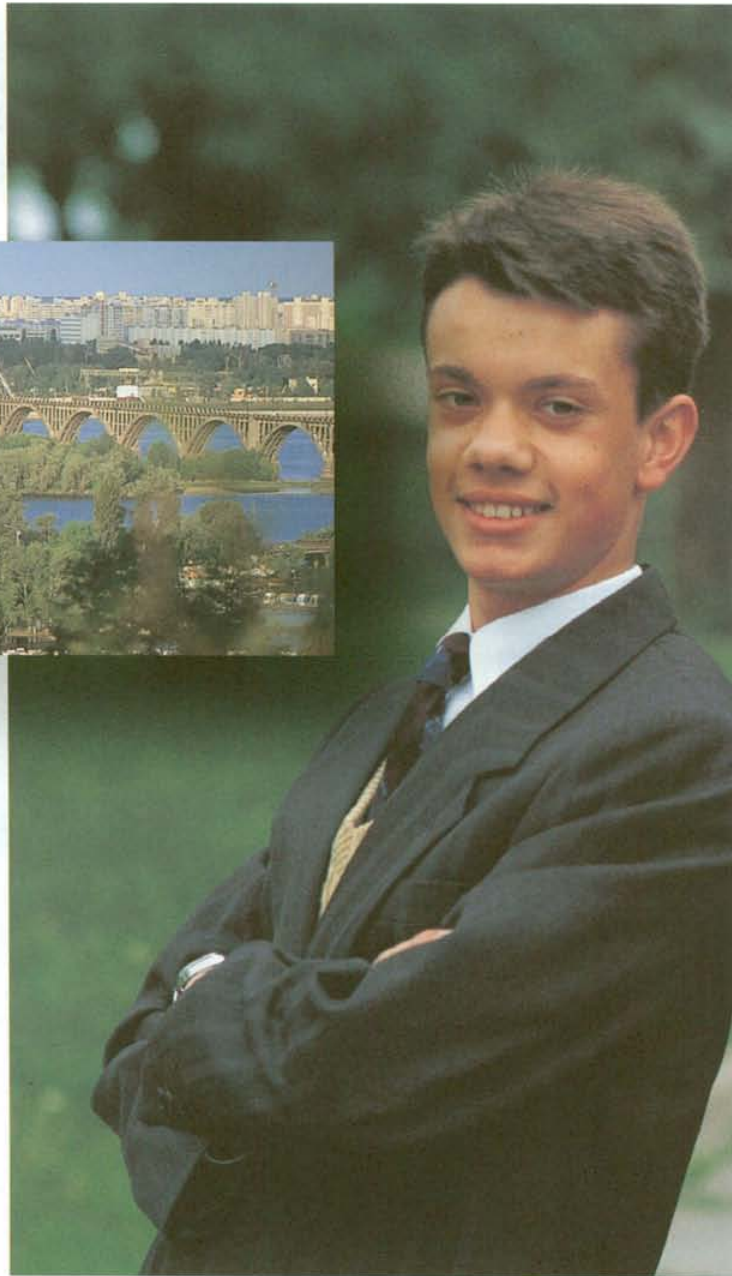
모든 형제들처럼 물론 그들에게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20세인 세르게이는 과감하며, 형보다 키가 큰 12세의 니콜라스는 조용한 편이다. 둘 다 운동을 잘하며 역기를 들고 헬리콥터(*회전 돌기, 브레이크 댄스)를 좋아한다. 이 둘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니콜라스는 피아노를, 세르게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나 부모인 세르게이 이세와 벨리아에 대한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벨리아와 남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세르게이 이세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니콜라스와 세르게이 이세의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은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이세는 그들에게 선교사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설득했다.

“저는 복음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범을 보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죠. 저는 아버지께서 교회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상냥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신 거죠.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되었습니다.”라고 세르게이 이세가 말한다.

“전에는요, 가족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진가를 알게 되었어요.”라고 체미조프 자매가 설명한다.

“저는 형이기 때문에 언제나 길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니콜라스 옆에 서보면 그 애가 저보다 더



키예프(위 왼쪽)는 니콜라스와 세르게이 체미조프(위쪽) 같은 말일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큰 현대적 도시다.

큰 걸 깨닫죠. 가끔은 동생이 저를 가르치며,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동생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세르게이는 말한다.

니콜라스는 세르게이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그러했다. 체미조프 형제가 말한다. “그 애는 침례 받은 이후로 계속 얘기했어요. 성찬 전달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 할 수 있어요? 그 애의 그런 흥분이 우리의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지요. 니콜라스



는 다른 사람을 돕고 가족을 도움으로써 신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 애는 12세가 되어 내가 그를 집사로 성임해 주었을 때 무척이나 행복해 했답니다.”

니콜라스는 가족이 독일의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인봉될 때에도 무척 기뻐했다. 세르게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이 끝난 후, 자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시내에 나가 쇼핑을 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시내에 나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니콜라스는 성전에 관해 말하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 다른 데에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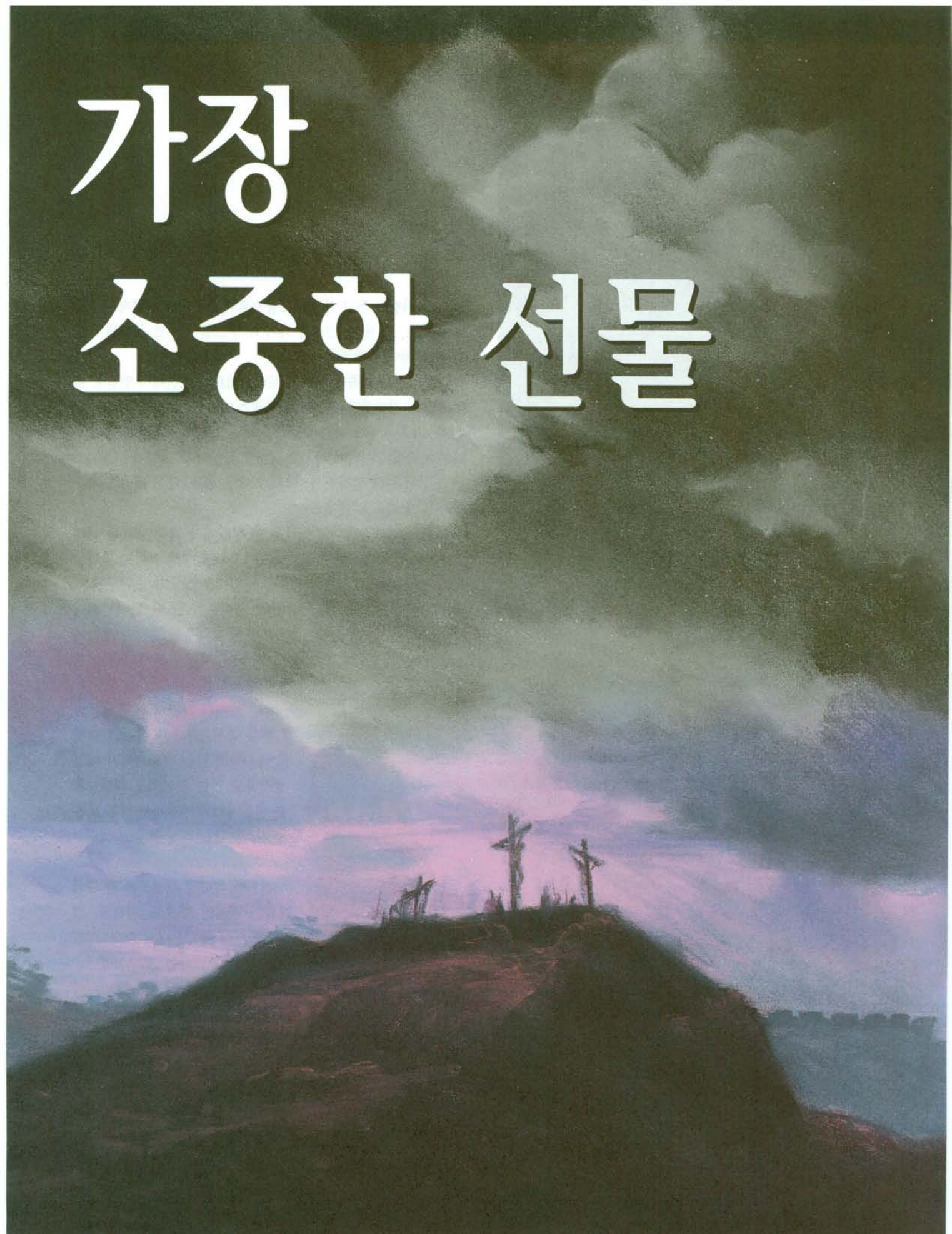
니콜라스는 말한다. “신권은 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지요.

신권을 영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현재 일본의 동경 북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세르게이가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니콜라스도 언젠가는 형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키예프는 세 명의 맹렬한 형제인 키예프, 셔체크, 코리프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을 기념하는 조각상에서는 그들의 누이인 리베드가 뱃머리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두 팔을 뻗치고 있다. 이 고흥스런 도시에 그녀의 이미지는 우크라이나의 젊은 말일성도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더 높은 비상을 염원하며 그들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날고 있는 것이다. □

가장 소중한 선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영원한 은사를 주십니다.

존 비 덕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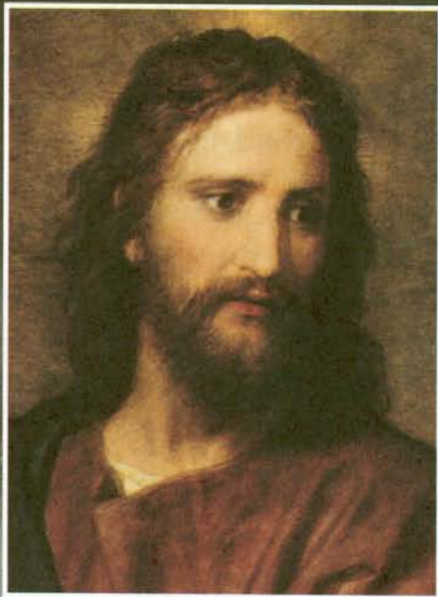


그림: 스킵트 스노우, 콜로라도, 심해. 그리스도와 부자 황별 광물에서 인용된 것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크나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지도자, 및 교회 회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다 보면 개종을 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마련해 주셨고 바로 그 계획의 핵심 인물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될 때 그들의 생활이 변하게 되고 영혼은 살찌게 됩니다.

멕시코 시와 타마우리파스 템피코 사이에 있는 브이 코르타(지름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멕시코 중심부의 산맥과 해안 평원이 마주치는 곳에 자리잡은 팬악스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생각합니다. 이 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싱그러운 숲이 우거진 습한 지역으로 지명은 휴스테카라고 하며, 마을 주민은 리하이 자손입니다. 제가 멕시코 시 북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해인 1979년에 선교사들은 휴스테카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팬악스틀에서 52명이, 동시에 신 템포알 멕시코 지구인 인근 마을에서 400명이 입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팬악스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회 회원들은 교회를 욕하든가 마을을 떠나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닌 진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회원들 특히 여성 회원들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있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서서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폭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폭도들이 큰 칼을 휘두르자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참되다고 간증한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굳건하게 지키자 마침내 폭도들은 칼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지키

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일찍이 맺었던 성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종하게 되었던 것은 물론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 대륙에서 살고있던 조상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 처럼 팬악스들의 회원들은 마음이 강박해진 사람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약은 구세주께서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간증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0:27~28) 신약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구 중에서 가장 사랑에 넘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하지만, 태초부터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계획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 분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분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권능을 위임하며 왕국의 기초를 다지시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곧 닻치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확고한 신앙을 가졌으나 나머지 제자들은 신앙의 뿌리가 약한데다 그분의 당당한 가르침마저 못마땅하게 여겨 “물러가고 다시 그

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66)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세속적인 일과 관련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실거라고 믿었습니다. 개중에는 신앙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비로서 그분이 지닌 사명의 참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을 계기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힘이 되어 그들은 시련과 조롱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수한 세계”(모세서 1:33)와 이들 세계의 관리에 수반된 그분의 보호와 약속을 비롯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분명히 그 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모세서 88:63)

그분은 길에 표시를 하여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대한 그 분의 관심을 과연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음의 우화에서 찾아봅시다.

윌리엄은 자녀 모두를 사랑하였습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녀들을 그의 곁에 두고 싶



그림: 주디토우, 거룩한 가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지만, 얼마동안 집을 떠나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녀들이 그가 가르친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한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스스로 찾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규칙을 배우고 이해하여 규칙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따금 집에 전화를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그들이 전화하면 틀림없이 그들의 전화를 받고 소식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과거에 시간과 사고력과 자원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투자한 덕분에 재산을 꽤 많이 모았고 상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서둘러서 목수 연장을 정리하고 꽃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집을 한 채씩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윌리엄의 집에서 발산되는 온후함과 사랑과 밝은 햇빛이 주위를 에워싸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 모두가 다시 집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행복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자녀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화평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윽고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폴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리, 케네스, 및 사라가 차례차례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조금 더 있으면 그것들의 격조와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와 토마스, 낸시와 클라라는 왜 안 왔지?”라고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이들과 한 약속은 다른 자녀들과 한 약속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간단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하고 케네스가 말을 꺼냈다.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군요. 토마스는 집에 오고싶지만 좀 바쁘다고 그래요. 애들과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대요. 왈스는 멋진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 좋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나 봐요. 낸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래요. 하지만 그녀는 못 오겠다고 그러는군요. 그런데 클라라의 사정은 좀 달라요. 자기는 규칙을 지킬만큼 지켰다고 해요. 제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 생활을 하고 싶대요.”

윌리엄은 이 얘기를 듣고 그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준 선물은 기이하고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준비한 이처럼 훌륭한 선물의 축복을 거부하고 나를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나와 그들에게서 크나큰 기쁨이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다음 성구를 읽으면 선물이 제공되었으나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하는 경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선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33)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향유할 수 있게한 모든 선물과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유일한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불사불멸과 영생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우리가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신의 은사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생일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그들이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는 것을 보며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 선물을 자녀가 받기를 거절하고 밀쳐놓는다면 부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분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대속의 열매를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란 “이 생에서 주어지는 성신의 은사와 내세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뜻하고 전자는 필멸의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후자는 불사불멸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교리 주해서, 3권[1965~1973년], 2:435)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속과 성신의 영감 및 지시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경전과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야 하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분의 속성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 하니, 이는 저들이 말일에 그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8:23~24)

교리와 성약에서 감동적인 한 구절을 읽으면 구세주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는 요구 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잠깐 지켰다가 저버려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그림: 케네스 케네디,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는 모습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선물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필수 조건의 핵심이자 중심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 (교리와 성약 20:29; 강조 부분을 기울임 꼴로 표시하였음)

둘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세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 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0~13)

셋째, 구원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면서 열쇄가 전해졌고 침례에서 가족 인봉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복음의식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강조 부분을 기울임 꼴로 표시하였음) 양과 염소의 우화를 읽으면(마태복음 25:31~46 참조)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필수조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이것은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우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들, 즉 주택의 울타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면 할수록 자주 반복되는 얘기, 즉 “그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



그림: 벨 파슨, '그분께서 부활하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주십니다.

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판단을 잘못하여 어찌면 비극을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솔한 결정을 내린 후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대수롭게 얹게 여길 경우 이러한 후회는 뼈저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킬 때 영원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었던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의 아내인 바바라 크리스틴슨 자매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여러분이 귀환할 때 지니고 가는 것이 있다면 좋은 나쁜든 그것은 추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억이 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조 부분을 기울임 꼴로 표시하였음) 이것은 비단 전임 선교사 시절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생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할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회개를 미룰 경우 야기되는 영원한 결과, 잘못된 결정의 결과 및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또한 살리심을 받을 것이나 또다시 자신의 옛 장소로 돌아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88:32; 강조 부분을 기울임 꼴로 표시하였음)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하고, 자녀 및 배우자와 늘 같이하며, 경전을 읽으며, 완전한 십일조를 내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지명된 임무와 부름에 충실하며, 주일마다 성찬을 합당하게 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누리고 계시는 생활을 우리가 물려받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따금 부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찬송가 109장)의 가사의 참 뜻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 가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메세지입니다. □

영의 증거

청년 시절 브리감 영은 복음이 참된 것인지 알려고 2년 간 애썼습니다. 이 같은 고민은 한 선교사의 단순한 간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후에 영 대관장은 “말씀씨가 능란하지 못한 그 선교사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물몬경이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신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었으며, 빛과 영광, 불사 불멸이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교회 대관장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년], 315쪽)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암흑과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계시나이까?”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남자가 두 젊은 선교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집에 부른 목적은 선교사의 교회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알리는데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잘 모르면서 비난하고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 붉어진 얼굴로 선교사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온화한 목소리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얼마간 진정이 되었는지 망설이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

니다. “저는 선교사 봉사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매우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간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온 마음이 사로잡히자 흐느껴 울었죠. 소리 내어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민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은 저에게 이러한 진리에 대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전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장로가 하던 이야기를 멈추자 방에 영이 가득 찼습니다. 그 선교사는 상대방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화평을 이야기하는 영은 제가 당신에게 전해 주려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당신에게 간증해 줄 바로 그 성령입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해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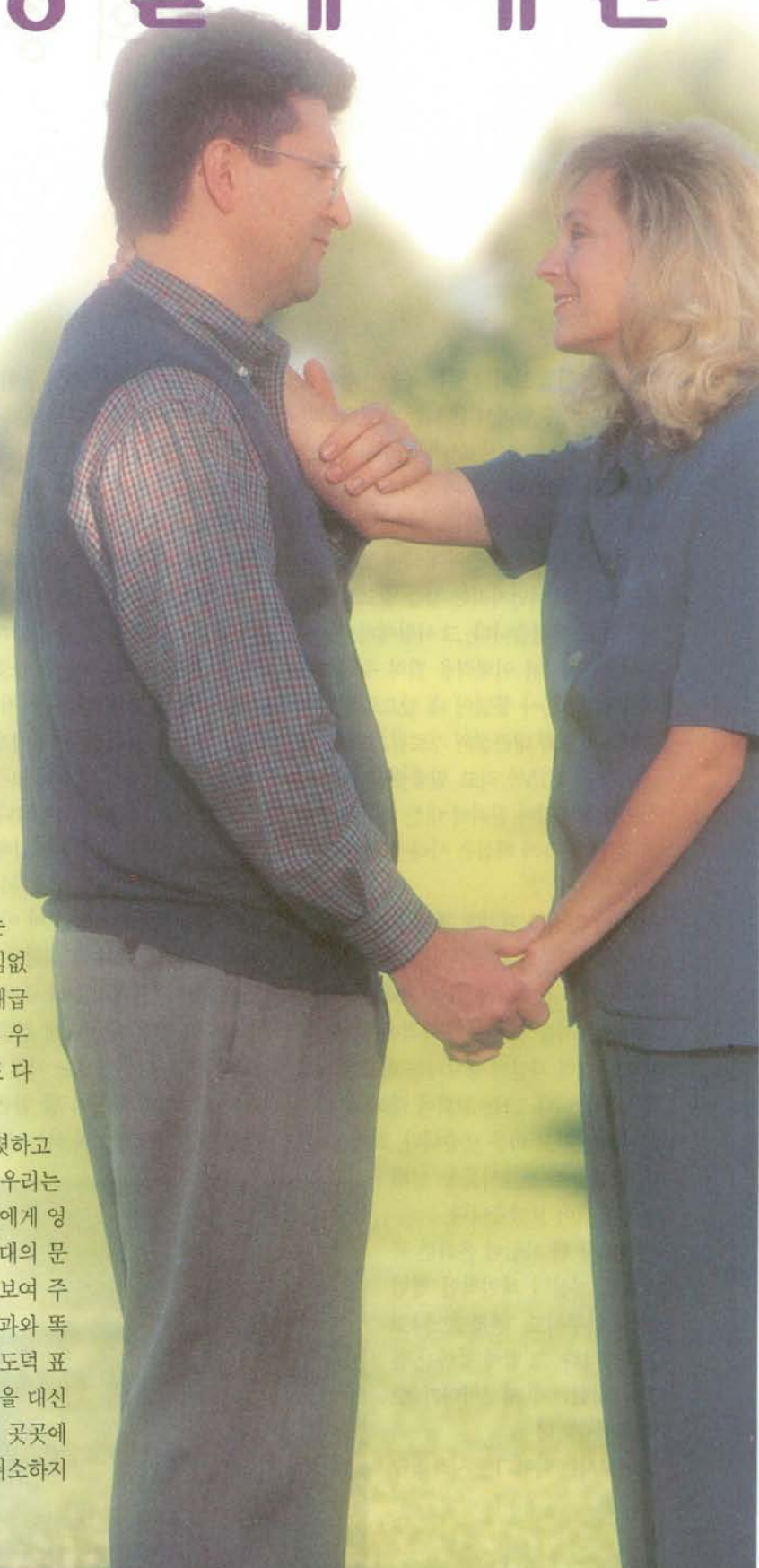
그 사람은 말을 하려 했지만 크나큰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방금 그에게 일어난 일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자 그저 선교사들을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난생 처음으로 영의 감화를 받았고 주님의 참된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매인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은 모든 참된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특권이며 성스러운 복음의 축복입니다.”(교회 대관장의 가르침: 브리감 영, 317쪽)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증을 얻었는지, 이미 가지고 있는 간증을 강화했는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과 위안을 간구하였는지, 혹은 가족을 한층 강화하거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를 구한다면 영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



순결과 정절에 대한



다음은 주님의 예언자들, 선견자들 및 계시자들이 행하신 말씀으로서 순결과 정절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재확인해 준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전통적인 도덕 원리를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정절을 지키기가 쉬웠으나 지금은 어렵다고 보는 그릇된 합리화의

사고 방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 세력이 창세 이래 끊임없이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동침을) 청했던 사실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당면하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은 과거보다 뚜렷하고 유혹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그런 것들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 주었던 자제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요셉이 거두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위 '신도덕'이 나오고 도덕 표준 변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덕행(순결과 정절)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이 세계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취소하지

예언자들의 가르침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후회와 슬픔, 자기 상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극을 몰고 오게 마련입니다.” (“With All Thy Getting Get Understanding”, *Ensign*, 1988년 8월호, 4쪽, *Ensign*에 실린 기사이므로 영문 제목을 그대로 두었음)

“외설 문학은 악마의 문학입니다. 그것을 피하십시오.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와 식견을 보다 높고 고상한 차원으로 높이십시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엘마서 41:10)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불순종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995~1996년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한 말씀* [1996년], 53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년): “이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최악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예언자 요셉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혹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쪽)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부도덕에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을 어길 경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부도덕한 행위에서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안 모든 일이 잘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반전되고 말 것입니다. 죄

의식과 수치심이 생길 것이고 자신들의 죄가 발각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몰래 움직이며 숨고 거짓말 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애정은 사라져 버리고 쓰라린 괴로움과 질투, 분노, 심지어는 증오심까지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죄와 범범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의 법을 지키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이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큰 사랑과 평안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에 대해 더 큰 신뢰와 존경심이 일어날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결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깊은 회열과 행복감을 맛볼 것입니다.

“순결하게 생활할 것을 지금 결심하십시오. 순결과 정절을 유지하며 생활하겠다는 결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 결심을 지금 하십시오. 이 결심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결심하고 또 굳게 맹세하십시오.” (“순결의 법”, *탐볼리*, 1988년 10월호, 37~38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우리 신체의 성스러운 출산 능력과 기능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그 능력과 기능은 오로지 혼인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물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순결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범죄에서 벗어나 순결한 상태로 결혼의 제단에 나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The Sanctity of Life”, *Ensign*, 1975년 5월호, 27쪽, *Ensign*에 실린 기사이므로 영문 제목을 그대로 두었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1895~1985년): "죄는 여전히 죄인 것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순결한 생활을 할 것을 지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 무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혼전 성생활도 죄악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맺었던 성약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선언합니다.

"이전에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바꾸어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전까지 완전한 순결을 유지해야 하고 결혼 생활 동안 완전한 정절을 유지해야 합니다."("The Time to Labor is Now", *Ensign*, 1975년 11월호, 7쪽, *Ensign*에 실린 기사이므로 영문 제목을 그대로 두었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순결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여러분의 요구에 응하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지역 대회, 54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세상은 성적 부도덕에서 오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결과 정절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써 육으로 난 인간의 정욕에 순응하기를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지혜는 우리가 육으로 난 인간의 정욕을 억제할 것을 언제나 촉구합니다.(모사이사야서 3:19 참조)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The Inexhaustible Gospel", *Ensign*, 1993년 4월호, 71~72쪽, *Ensign*에 실린 기사이므로 영문 제목을 그대로 두었음)

"청소년 여러분, 세상이 일곱 번째 계명, 즉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들 가운데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할 경우 그것이 물고 올 결과—예를 들면 선례가 없는 변칙적 결혼 생활이나 결혼 생활의 붕괴—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계명을 범한 사람이 칭찬할 만하고 가치 있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성적 부도덕을 정죄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회 조직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The Pathway of Discipleship", 1997~1998년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한 말씀*(1998년), 109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순결과 정적, 하나님 계명에의 순종 등을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희롱이나 논평을 참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 원리의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올 때까지 노아가 하는 일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대회 보고, 1967년 4월, 58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원한 배우자는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능력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순결의 법에 의해서 보호 받습니다."("Self Mastery", *엔사인*, 1985년 11월호, 31쪽, *Ensign*에 실린 기사이므로 영문 제목을 그대로 두었음)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숭고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출산의 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 출산 능력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출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의 능력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관계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정당하며 신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성행위 자체는 조금도 불경스럽거나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행위를 통해서 생명 창조와 사랑의 표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블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311쪽)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4쪽)



보이드 케이 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 “가치관의 급속한 부패는 성에 대한 몰두, 심지어는 강박 관념으로까지 보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은 공공연하게 조롱거리가 되며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것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으로서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나 품위 있는 사회의 덕성이었던 정숙함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우리의 도덕 환경”,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6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영원한 결혼 성약 내에서,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분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해 신성한 출산의 능력으로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밀하고 신성하며 개인적인 경험의 목적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멸을 경험하도록 원하는 영들에게 육체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충성하고 충실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맺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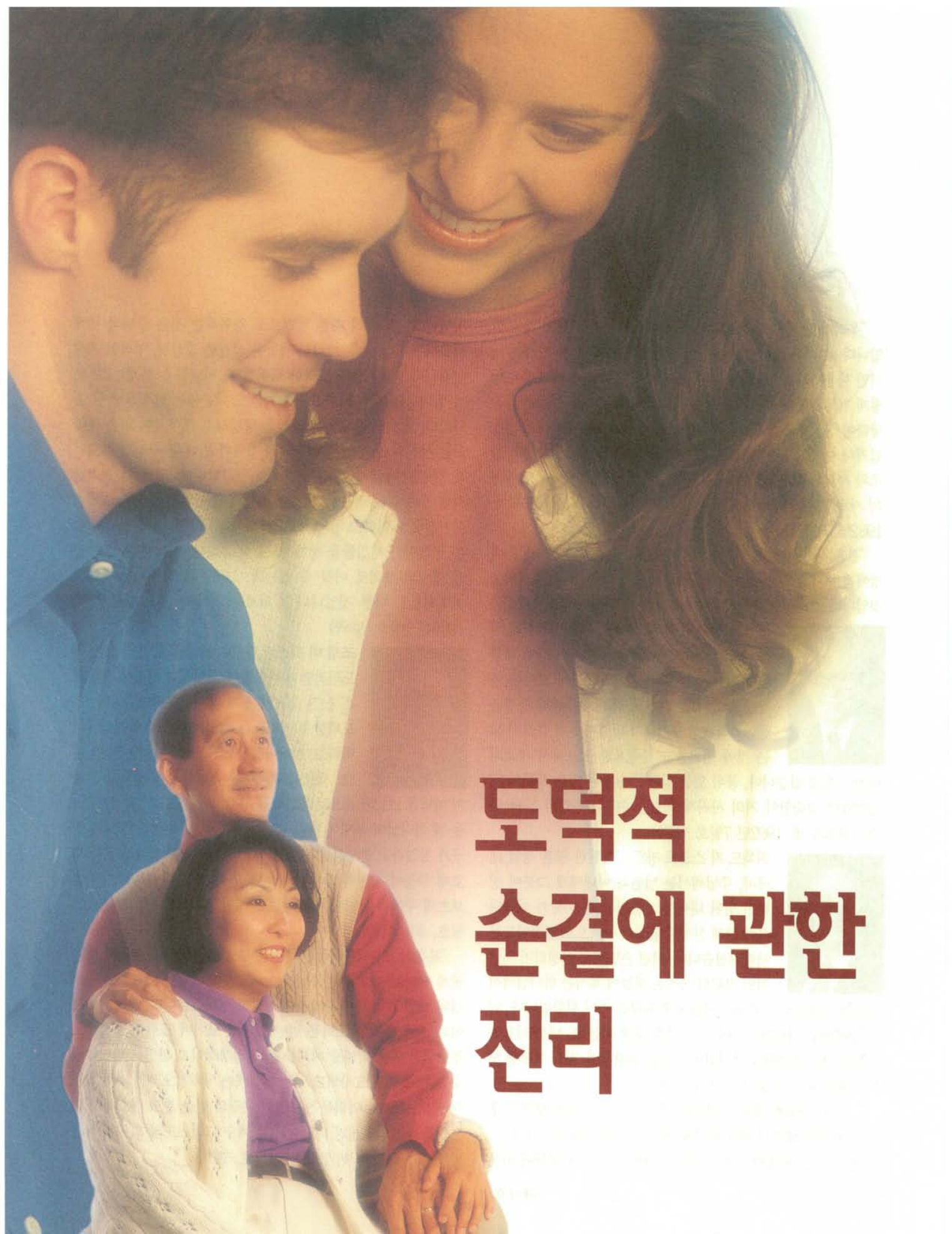
“그러나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의 그러한 은밀한 행위는 주님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금하셨습니다. 신성한 결혼 성약 내에서의 그러한 관계만이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결혼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재는 그 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정신을 양양하고 깨우치며 힘을 부여하는 성신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장애가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일으킵니다. 결국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야기하고 잔악 행위, 낙태, 성적 학대, 강력 범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은 동성 연애의 행위로 이끌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악마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의로운 선택을 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8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세상을 즐기고 있는 비도덕적인 음란물들에서 벗어나 생활하기를 젊은 신권 소유자 형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도덕함을 가져오는 외설, 음란 및 불경함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덕을 쌓고 순결하십시오. 새로이 피어나는 청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미덕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을 지지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자 친구가 정결하고 순수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친자매의 순결을 보호해 주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자매들의 미덕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순종하는 생활”,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40~41쪽)

“복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은 주님께서 정하신 순결의 법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엄격한 도덕은 별난 것처럼 보이며 또한 외설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정상적이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현실에는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주님이 순결의 법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열매”,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9쪽) □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오늘날 사탄은 순결과 정절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 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활을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시키십시오.

테런스 디 올슨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서 블레인은 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불현듯 그는 자신의 간음이 결혼 생활에 몰아온 큰 불행으로 인해 아이가 아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몇 년 전이었다. 블레인은 아내가 자녀들과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또한 블레인은 자녀들과 복음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적인 생각에 물든 그는 순결이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 바뀔 수 밖에 없어. 바람 좀 피운다고 뭐 대수야"라고 변명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아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는 선도 평의회 모임의 소집과 곧 닥쳐올지도 모를 이혼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변명이 진실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했던 것이다. 그는 회원 자격을 잃게 되었으며 어쩌면 가족까지 잃을 처지에 빠졌다.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엄습해 오는 죄책감을 절실하게 맛보았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의 성욕이란 단지 육체적인 일만이 아니다. 사실상 순결과 정절은 육체가 아닌 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우리 영의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의 영이 복음 진리에 맞추어질 때 우리는 높은 표준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결과 정절은 결혼 전에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절제하거나 결혼 후에 성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질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행위와 부정 역시 단순한 육체적 행위 이상의 것이다. 부도덕한 행위와 부정 또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나

타내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우리의 영이 출발했던 길의 정점에서 있는 것이다. 육체는 단순히 육욕에 빠진 영이 지시하는 대로 반응할 뿐이다. 우리가 빛과 진리를 거절할 때, 세상의 거짓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을 걸으며, 우리의 육욕은 정상적인 것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므로 영의 상태나 자질에 따라 미혼자의 순결이나 기혼자의 정절이 위협받게 된다. 바로 이 영의 상태나 자질이 어떤 순간에나 우리가 어둠과 죽음보다는 빛과 생명을 택할 것인가, 맘 속에 있는 진리를 존중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진리

순결과 정절이 큰 축복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순결과 정절은 우리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28세에 침례 받고 교회에 들어온 수잔은 언제나 순결의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미국 중서부에서 자란 수잔은 이렇게 말했다. "저의 부모님은 고결하신 분들로서 제가 정직과 순결의 높은 도덕 표준을 갖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톰을 만나기 전에는 말일성도와는 데이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 후 저는 톰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고 1년 후에 딸이 세상에 나오던 중에 죽었죠. 우리는 망연 자신했으나 결혼할 때에 성전에서 합당하게 인봉되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 아기가 성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수잔과 톰은 결혼한 지 24년 동안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아직도 중서부에서 살고 있다. "우리 친구들과 사촌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우리에게도 재정적인 문제나 가족

*사용된 이름은 가명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둘은 다 성전 성약에 충실하길 바라므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어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처럼 영감을 통해 주어지는 권고는 모든 개개인의 복리에 필수적이다. 결혼이란 우리의 배우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우리의 마음, 즉 상한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모사이야서 18:21)여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보면 순결을 조롱하고 간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가장 흔하게 가족에게 자행되는 파괴적인 공격의 일종이다. 가족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족이란 울이 뜰어지면서 사회라는 편직물 또한 약해지고 있다. 부정행위는 가족간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외부적인 힘보다도 파괴적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은 순결과 정절이 행복을 얻는 데 불필요한 것이며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설득시키려 한다.



다. 그것은 내부에서 가족을 공격한다. 간음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은 신뢰, 단합, 희생 정신, 정직, 겸손, 그리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영적 능력 등이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은 자신감, 정서적인 힘, 합당성, 마음의 평화 등이다.

불순한 성행위는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현재를 넘어, 부정한 관계를 갖는 순간을 넘어 지속된다. 그 결과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고 아버지가 흐느끼며, 형제 자매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결혼 생활은 흔들리거나 파멸되고 만다.

성적인 순결이야말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을 존속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성약을 영화롭게 할 때,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서 신성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자들은 그러한 생이 축복임을 증거한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보람 있는 길이며, 가장 생산적이고 안전한 길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임을 증거한다.

모조품

주님께서 순결과 정절을 요구하는 데 대한 세상의 반응은 진리의 모조품을 내놓는 것이다. 이 모조품은 순결과 정절이 행복을 얻는 데 불필요한 것이며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생각은 부도덕한 생활을 매력적이고 옹호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정당화하려 한다.

잘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판별하기 어렵듯이 성적인 부정으로 이끄는 매혹적인 유혹은 너무나 잘 위장되어 있어 부도덕한 행위가 허용되고, 가치 있으며, 심지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게끔 포장되어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루시퍼는... 그의 논리를 통해 혼동시키며, 합리화를 통해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며, 한 번에 조금씩 문을 열어 순백에서 회색의 온갖 농담의 변화를 거쳐 가장 진한 검은색이 될 때까지 이끌고 갑니다." (기적을 낳는 신앙 [1972년], 152쪽)

바로 이러한 회색의 영역 안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마음에 담아 두는 것들로 인해 삶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매혹적인 유혹은 사실 우리에게 최상의 유익을 가져오는 생활과는 상반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유혹일뿐이다. 세속의 약속이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것이다. 기껏해야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대한 모조품에 불과할 따름이다. 다음의 구체적인 거짓이 순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있다.

첫째, **개인주의**—개인의 정체성, 권리, 발전, 복리는 가족 유대와 책임과는 상반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짓 개념. 이 거짓말은 우리의 생활과 성적인 감정은 단지 우리만의 일일 뿐이어서 우리만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며,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둘째, **상대주의**—모든 도덕적 표준들이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짓 개념. 이 개념에 있는 거짓은 어느 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점이다. 도덕이란 여러 가지 관점들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관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셋째, **속이기**—우리는 충동이나 욕망, 과거의 환경 및 결함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거짓 개념. 이 거짓말은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성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통제력을 잃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 거짓말들은 다음의 복음 진리들에 대응하는 모조품들이다.

첫째,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은 개인의 정체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지상에 왔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복음의 진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통념의 철학에서 그것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통념의 특성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이사야 5:20)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릇된 세속적인 통념에 대한 복음의 진리의 예를 몇 가지 든 것입니다.

그릇된 세속적인 통념	복음의 진리
1.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데 무슨 상관인가.	1.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께 속한 몸이다. 따지고 보면 나는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께서 값으로 사신 (고린도전서 7:23) 몸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른 것이다.
2. 노골적으로 성모사가 된 영화, 문학, 또는 텔레비전을 외면하는 것은 샌님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보거나 읽어도 괜찮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2. 복음하는 악의 분량이 많건 적건 독은 독이다. 음탕한 생각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14 참조) 사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언동으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모사이사서 4:30; 엘마서 7:23 참조)
3. 우리도 인간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3. 우리 각자는 의를 택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니파이서 2:27; 할라맨서 14:30 참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3; 니파이삼서 18:15 참조)
4. 성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 나면 거리낌없이 발산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해.	4. 성적인 감정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이긴 하나 결혼한 당사자 사이에 표현해야 한다. 성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이다. 진실로 우리가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16:25~26 참조)
5. 외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옷차림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잖아.	5.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2:9~10; 고린도전서 3:16; 6:19~20 참조)
6.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령의 남자는 혼전에 성적인 잘못을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6. 하나님께서는 혼전 성생활을 금하시고 있으며, 혼전 성생활은 창조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범하는 결과가 된다. (고린도전서 6:13, 18; 야곱서 3:12)
7. 회개는 간단한 거지.	7. 회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순수한 회개 및 성격의 변화를 소홀히 다루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를 비하시키는 것이다. (엘마서 39:3~9; 교리와 성약: 18~11; 19~4, 16~18; 82:7 참조)
8.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얽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결혼식은 필요 없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	8. 결혼의 성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심은 곧 결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49:15) 결혼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성약이며 하나님과 현재 및 미래의 가족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i>리아호나</i> , 1998년 10월호, 24쪽 참조)
9. 성적으로 서로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거할 필요가 있어.	9. 성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부부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정신 상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결혼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결합은 복음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이루어진 것이다.

써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누가복음 9:23~26; 모사이야서 2:17 참조)

둘째, 도덕성을 고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상대론적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불변의 표준들을 인정하게 된다.(엘마서 7:20~21 참조)

셋째,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적인 충동에 반응하여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여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그 욕망들이 우리를 조종하게 하여 노예가 될 수도 있다.(니파이서 2:26~27 참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짓말에 찬성하여 진리를 거부하도록 유혹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사용했던 술책을 사용한다. 사탄은 우리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욕망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넌지시 말한다.(마태복음 4:1~11 참조)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상에서 우리의 사명의 중심이 되는 성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하도록 설득한다. 주님께서는 곧고 좁은 길에 이르는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시는 데 반하여, 사탄의 가짜 표시판은 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결혼과 가족을 중심에 놓는 데 반하여 사탄의 모조품은 혼전, 또는 혼외의 성관계가 너무 매력적이라 참을 수가 없으며, 어쨌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에게 했듯이 우리의 육체로 하여금 부적당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악마의 유혹의 손길이다.

우리의 자유의지

요셉은 애급에 팔려간 즉시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에게 했듯이
우리의 영을 유혹하여 육체로 하여금
부적당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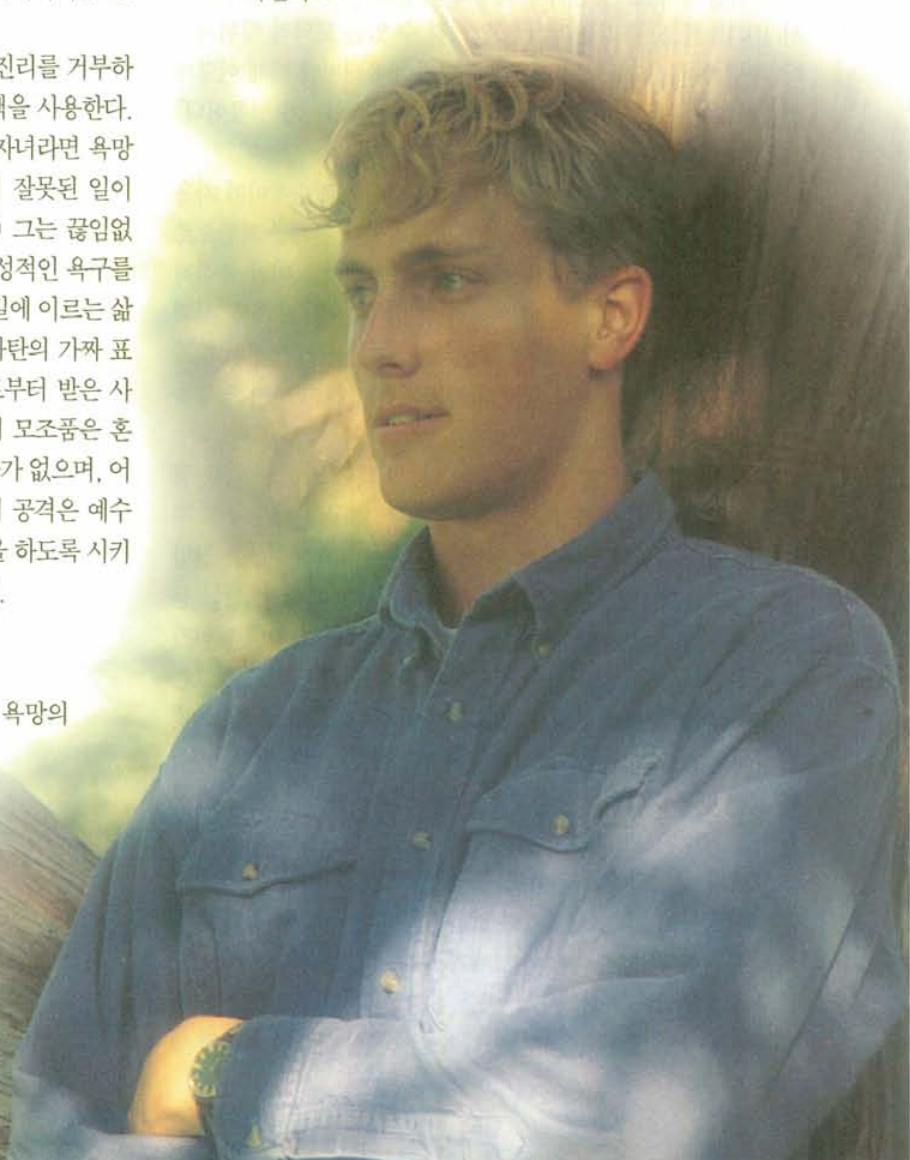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의 품위를 떨어뜨릴 때에는 반드시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도 더럽히게 됩니다.”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창세기 39:7~12)

우리도 요셉처럼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는 육체가 아닌 영에 거한다. 따라서 육체는 영이 시키는 대로 반응한다.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의 희생자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우리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이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교리와 성약 58:28)

사탄의 말과는 달리 성적 순결은 실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그에 따른 여러 물리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오랜 흔적을 남기는 결과를 피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결과는 종종 우리의 예상이나 통제의 한계를 넘어선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결과는 혼외 임신이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치의 성병이나 그 결과로 인한 영구 불임은 주로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에이즈는 끊임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정서적 압박감, 후회, 죄책감, 상심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결과도 마찬가지로 쉽게 해결하거나 잊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사람이 결혼 생활의 품위를 떨어뜨릴 때에는 반드시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도 더럽히게 됩니다.” (“결혼 생활”, 성도의 빛, 1981년 10월호, 16쪽)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순결과 정절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요셉과는 달리 다윗왕은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시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갈망했다. 그리고 간음을 한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자 우리아를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했





다. 그 후 예언자 나단이 암양 새끼의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 명백한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사무엘하 12장 참조)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다윗왕과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어두움에서 빠져 나온 후에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현실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순결의 법을 어긴 자들 중에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거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변명과 합리화와 다음과 같은 말들을 믿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난다. 난 단지 통제력을 잃었을 뿐이다.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아직 젊다. 여러분은 사정을 모른다.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지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사람들은 사랑을하다가 그만두기도 한다. 내 배우자는 그전 같지 않다. 사람은 변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한번 실수했을 뿐이다. 그것은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나중에 회개하겠다. 우리는 다르다. 적어도 이 일이 우리 둘 다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일 수는 없다.

터무니 없고 옳지 못한 이런 모든 거짓 변명들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거부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악이 악임을 부인하려는 시도이다. 복음은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엘마서 41:10)이라고 가르친다. 반대로 세상은 행복을 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성적인 죄를 회개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도덕이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파멸적인 상황이었음을 증거한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것을 변명하거나 교묘히 둘러대어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요한일

서 1:8)이라고 말씀했다. 구세주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진리를 판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마태복음 7:16)

올바르게 행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부도덕한 행위가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경솔하게 선전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순결은 흔히 구식이거나 순진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순결이란 칭송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기대할 만한 것도 못되며 필요하지도 않고 은근하면서도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손 대대로 계속되는 훌륭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는 부모가 어떻게 안전하고 사랑스런 가정을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혼전 성관계나 결혼 생활에서의 부정은 개인과 가족과 사회적인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함정임을 알아차린다.

마음과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없다. 말일성도로서 맺은 성약에 일치하는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영을 주님의 영에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즉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변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게 된다.

현숙하라는 권고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도록 돕는 주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며 [우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정절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교리와 성약 132: 19) 영광을 받을 것이다. □

참고 자료

다음은 교회 배우 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순결과 정절에 관한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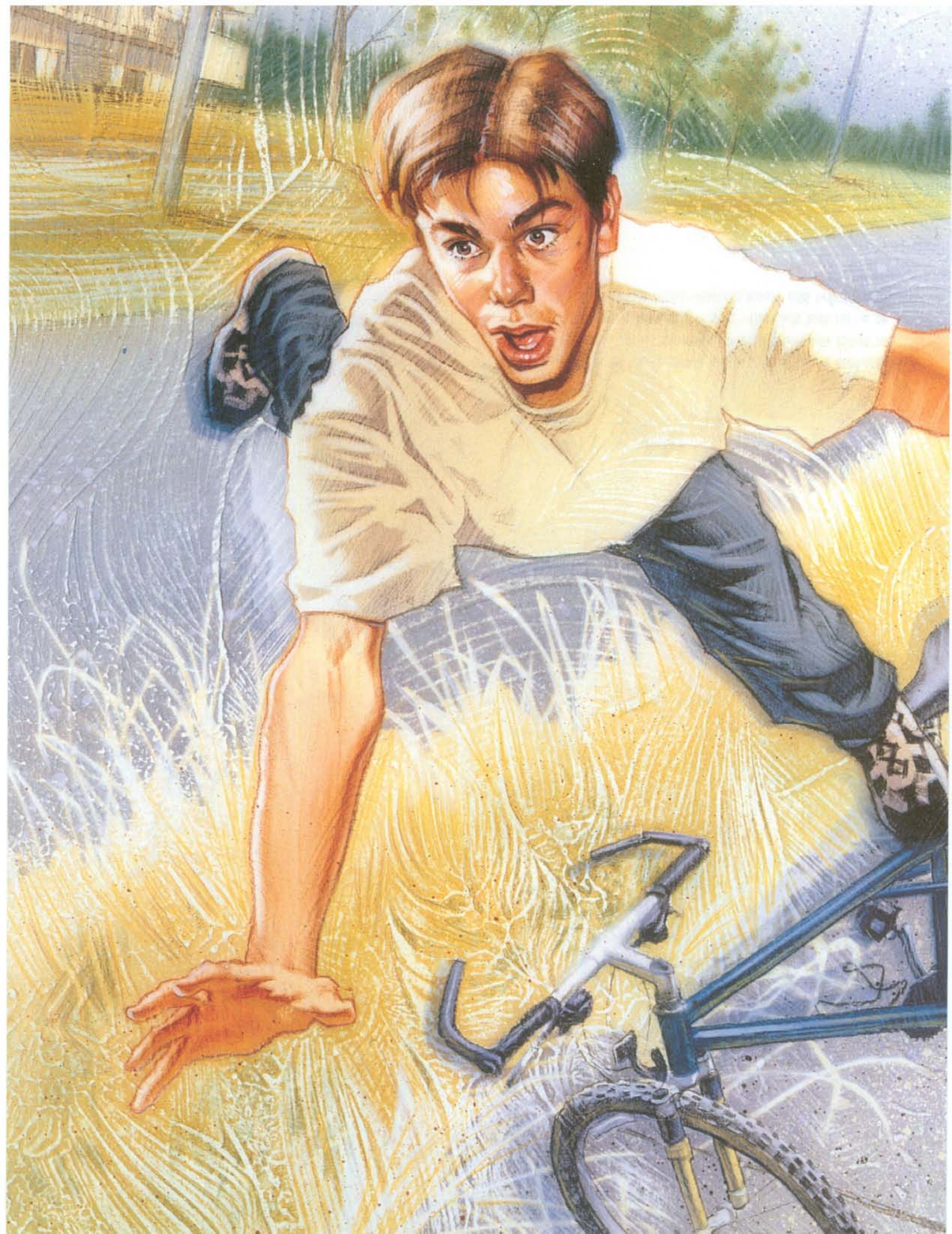
부모 지도서(31125 32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4285)

복음 원리, 39장, "순결의 법" (31110)

말일성도로서 맺은 성약에 일치하는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영을 주님의 영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변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해 주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게 된다.





신앙의 시련

두 달 만에 몰몬경을 읽는다구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테일러 하틀리

지역 회장단이 우리에게 스테이크 대회 전에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한 번 읽어 보겠니?”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해보겠어요.”라고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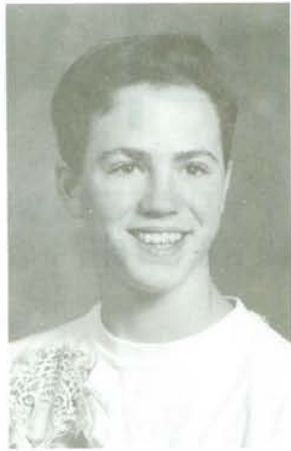
그런데 얼마 전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심한 뇌진탕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 동생 브랜트의 열두 번째 생일인 1993년 7월 27일이었지요.

브랜트의 생일날 아침이 왔는데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게에 가서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멀지는 않지만, 번잡한 주립 고속 도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는 인도를 달렸습니다. 인도를 달리던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채의 콘도 옆을 지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쪽 인도는 울퉁불퉁하고 모래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어 언덕 아래로 달렸으나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쭈시고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0대 소년 두 명이 사고를 당한 저를 발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땃새가 지나도 저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눈과 턱을 40 바늘 이상 꿰맸습니다. 베이고 긁힌 곳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 누워 있는 동안 사람이 많은 워드 회원들이 문병을 와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문병 온 사람들 거의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자 부모님은 언어 치료사를 초빙하여 저를 검사하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 정보를 기억에서 되살리고, 사고를 하며,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손상 정도가 부위에 따라 심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의 정신 연령은 낮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15세였지만 정신 연령은 12세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이고 굵은 상처는 낫겠지만
머리의 부상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
달 사이에 제가 과연
물문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사고로 인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는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자는 보
이지만 두뇌가 글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글을 읽는 법을 다 잊어버린 듯했습니
다. 아버지는 두 달 이내에 물문경을 다 읽을 것을 권하셨는데, 그것은 무리
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물문경을 읽는 것을 원하신다
면 그분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침대에 앉아서 물문경의 첫 쪽을 폈습니다. 앞에 펼쳐진 글을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 태어나?... " 내가 글을 읽다니! 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니! 몸의 한 쪽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어쩔 줄 모르겠는
데, 다른 한 쪽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주
님의 뜻이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물문경을 읽을 수 있
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달 만에 그 위대한 경전을 다 읽었습니다. 주님과
물문경이 다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욱 중
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저의 신앙과 기도와 경전
에 대한 간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간증이 저로 하여금
한국 서울 서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문경을 읽도록 권한 것은 고마운 일이었습
니다. 아버지의 권고가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고 있
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문경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기적과 복음이 회복된 기적뿐 아
니라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세인 알 버커
그림: 스티브 크롭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목표를 정할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망 때문에 하루를 몽땅 망치게 되거나 자신의 열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여기에 소개해 본다.

-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문제의 해결책을 낱알이 열거해 본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책을 찾는다.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두려워 말고 도움을 요청한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님, 감독(또는 지부장), 교사,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 필요하면 여러분의 부친이나 신뢰 받는 신권 지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계속 바쁘게 움직인다. 곰곰이 생각하며 울적하게 지내 보았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산보를 하든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든가 게임을 한다.
- 웃을 일이 있으면 소리 내어 웃는다. 나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유머를 찾는다.
-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다.
- 목표를 정한다. 지난번 수학 시험에서 낙제를 했는가? 그러면 다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
- 경전을 읽는다.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운다. 그리고 그들의 모범을 따른다.
-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친구와 사귀는 것이 사기를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여러분의 축복을 세어 본다. 인생의 올바른 일에 대해 생각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음악을 듣는다.
- 영원한 관점에서 생활 문제를 보는 방법을 배워 사물을 옹계 본다.
- 인내한다. 주님은 끝까지 건디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니파이일서 13:37 참조)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리아호나 편집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리아호나에 실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관련된 주제이면 무엇이든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dea List,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E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CUR-Liahona-IMag@dchurch.org*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실릴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를 자신의 조직의 일원이 되게 하는 방법, 성공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부름을 완수하는 방법, 복음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등. 이 밖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항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수많은 권고와 지시 가운데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같은 단순하고도 감동을 주는 말씀도 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행복을 얻는 비결을 보여 주셨다. 인간은 재산과 명성과 세속적인 노력, 그리고 행운을 사기 다른 비율로 조합하여 행복을 얻는 비결을 알아내려고 오랫동안 애써 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복의 조리법에는 한 가지 재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곧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일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최근에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라고 질문한 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행복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2쪽) 올바른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의 수확을 누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있다. (교리와 성약 130:21 참조)

다음은 독자들이 복음 원리를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담이다.

용서를 통해 하나가 됨

글: 오로라 로자스 데 알바레스

나의 결혼식이 있기 바로 얼마 전 나는 친동생 네입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가 그 감정이 마침내 언어로 표출된 것이었다. 처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기억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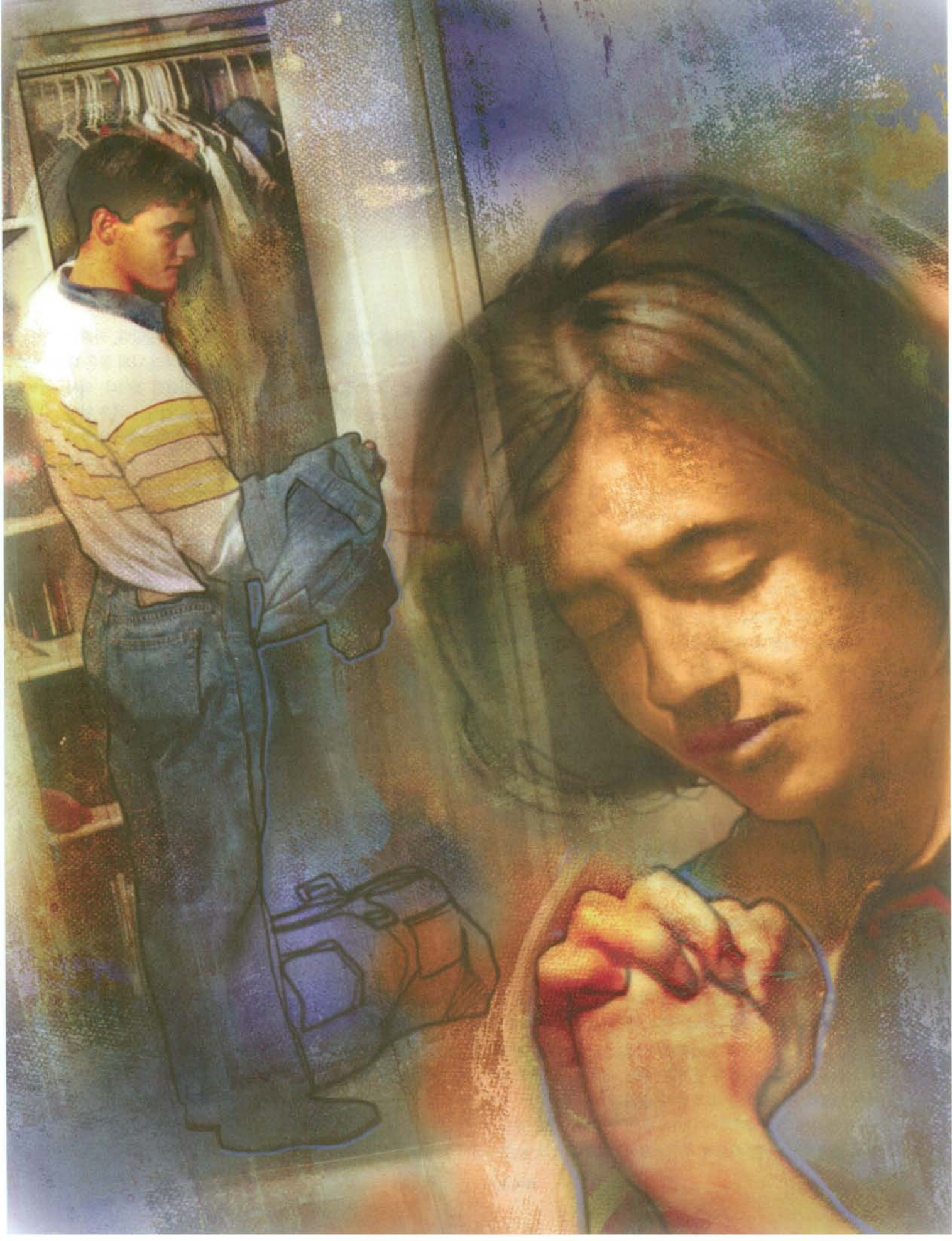
그 당시 내 동생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과 사이가 나빴다. 아버지와는 오해와 적대감이 쌓여 있었고 두 자매와는 전

혀 대화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가 네입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네입타를 사랑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 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갔고, 드디어 동생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다음주 우리는 주일학교 시간에 용서에 관한 공과를 배웠다. 나는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마음에는 “오로라, 너는 지금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영은 그날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동생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굳게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다음주 금요일 네입타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 나는 동생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어머니에게 드릴 수

흐르는 눈물 때문에 거의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생의 용서를 구했다.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방으로 가서 동생에게 해야 할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기를 주셨다.

나는 대화를 갖기 위해서 네입타를 한 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그 동안 무척 마음이 아팠으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끝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생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동생도 울기 시작했다. 동생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동생 역시 나의 용서를 구했다. 단 몇 분 동안에 우리는 수 개월 동안 묵혔던 쓰라린 감정을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이틀 후에는 아버지와 동생이 화해하려고 노력했고 서로 포용을 하며 대화를 마쳤다. 우리 가정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재정 사정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함

글: 이블린 콘드 휘

새로 개종한 많은 회원들이 그랬듯이 나도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십일조의 법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다. 겨우 버터 나갈 정도인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도저히 10분의 1을 떼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서는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다.

십일조를 바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재정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금전 관리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십일조를 시작으로 월간 지출 목록을 작성했고 그것을 월 수입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오히려 약간의 저축까지 할 수 있음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술과 커피에 낭비한 금액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내가 주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주님은 나에게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내려 주셨다.

독일에서 교회 회원이 된 후 나는 파티 석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문제 될 게 없어. 나는 깊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다. 술과 커피를 끊은 지 4주 후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리에 참기 어려운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무시하고 출근했다. 그랬더니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온몸이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더욱더 아파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의사는 나에게 알약 몇 알을 주면서 14일간 집에서 쉬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집에 가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십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 통증이 카페인 사용 중지로 인

한 금단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페인 이 몸에서 빠져 나감에 따라 나의 몸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의 충고를 따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행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는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켰다.

금식으로 인해 축복을 받음

글: 브리гада 아코스타 페레스

1976년 6월 26일 나는 멕시코에서 아들 칼로스 리(칼리라고도 함)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앙 원리에 빨리 익숙해졌고 완전하게 참여하고 싶었다.

우리가 최초로 맛았던 금식 주일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미 교회 회원이었던 나의 딸 조비타는 금식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연속 두 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날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였다. 칼리가 남동생과 함께 높이 9미터 가량 되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위에 누워 가장자리를 엿보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떨어지는 도중에 칼리는 전깃줄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손이 전깃불에 타는



지붕 위에 누워 가장자리를 엿보다가 칼리는 그만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도중 칼리는 전깃줄을 붙잡고 매달렸다.

것을 느끼자 그만 손을 놓고 보도 위에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칼리를 도우러 뛰어갔다. 그러나 나는 뭘 수도, 고함을 지를 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릎을 꿇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너의 아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느니라. 그는 살아 있느니라.”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왔다. 분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온몸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나에게 들려 온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평온을 느꼈다.

기도를 마치자 작은 아들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엄마, 울지 마. 칼리 형은 아무렇지 않아. 형은 살아 있어.”라고 방금 들은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우리는 칼리를 위로했다. 칼리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구하셨어.”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그날 금식을 마치면서 칼리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된 기적을 보여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칼리는 그때의 사고로 인한 아무런 후유증도 없었다. 청년이 된 칼리는 멕시코 엠 이다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했다.

못 값은 자전거 대금의 절반 빛

글: 알프레도 피 블랑크

1955년 12월 아르헨티나 동부에서 내가 침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의 지부장은 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특히 내가 감정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빛이 있으면 갚아야 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권고해 주셨다. 나는 그때 자전거 대금의 절반을 20여 년 동안 갚지 못했던 사실을 지부장에게 고백했다.

나는 열 여덟 살 때 사진사로서 시간제 근무를 했었다. 수입은 겨우 식량을 사고 부모님을 약간 도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는 자전거를 살 만한 돈이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행히 남동생이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던 주시의 가족을 알고 있었다. 주시의 가족은 아주 멋진 자전거를 비싸지 않은 값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려면 대금의 절반을 먼저 치러야 했다.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대금의 절반을 모아서 주시의 집으로 가져온 자전거를 샀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때 나머지 대금을 후에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주시의 가족은 부유한데다 좋은 집을 갖고 있었다. 내가 빚진 나머지 대금은 그들에게는 작은 돈이었으므로 그들은 곧 이에 대해서 잊을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공부를 계속해서 안경 기술자가 되었고 드디어 내 소유의 안경 점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재정 상태도 크게 좋아졌다. 그렇지만 나는 주시의 집 옆을 지나가는 일만은 언제나 피했다. 자전거에 관한 한 나의 양심은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년에 들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교회에 들어가기를 바랐다.

내 나이 서른 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수없이 피해 다녔던 주시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렸을 때 주시 부인이 내 앞에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시 부인,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말고요, 블랑크씨. 어떻게 블랑크씨를 잊겠어요?”

“그러면 20년 전 제가 샀던 자전거 대금을 아직도 다 못 갚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지요, 바로 엇그제 일 같은데

요.” 주시 부인은 말했다.

나는 주시 부인에게 내가 말일성도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침례 받기로 결정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시 부인, 저는 부인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동안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오늘 저의 빛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다. 주시 부인은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의 빛을 탐감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울었다. 못 값은 자전거 대금을 청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을 느낄 수 있었다! □

질문과 제언

이 기사를 가정의 밤이나 교회 공과 시간 또는 여러분의 사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도움이 될 다음의 질문과 제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 지혜의 말씀, 십일조의 법, 금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등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이 계명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나누다.

• 여러분은 어떤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경전의 축복들을 열거한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결정한다.



그림: 자크 조벳 티소트 (1840~1920), 주님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현숙하라는 권고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도록
돕는 주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며 서로 맺은 성
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교리와 성약 90:24)

“순결과 정절에 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
26쪽과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30쪽 참조.